11 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미국-뉴욕]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불)

구 분	9월 당월		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전체	10,192,081	1%	99,665,333	6%
소 비 재	4,571,561	2%	46,027,867	6%
중 간 재	1,848,575	8%	18,914,810	21%
수 산 물	1,313,659	-11%	12,308,960	3%
벌크농산물	1,378,274	-5%	13,185,735	-8%
임 산 물	1,080,013	16%	9,227,962	13%

자료원 :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수출입통계 자료 (9월 기준 자료)

※ 소비재 (야채, 과일, 와인/맥주, 스낵류, 가공 야채과일, 육류, 견과류, 커피, 낙농제품, 향신료, 화훼류 등)
 중간재 (가축, 식용기름, 설탕류, 종자류 등)
 수산물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
 벌크 농산물 (고무, 코코아, 커피 원료, 담배, 차류, 곡류 등)
 임산물 (목재류, 펄프 제품 등)

□ 주요품목 수입동향

(누적금액, 단위: 천불)

품목	작년 ('11.9)	금년 ('12.9)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배	76,367	53,376	-30%	아르헨티나	28,097	칠레	12,298	한국	7,480	7,480
신선버섯	82,368	94,082	14%	캐나다	80,953	멕시코	6,332	중국	4,293	1,693
인삼(엑기스)	16,049	18,520	15%	프랑스	8,858	중국	4,697	한국	2,830	2,830
인삼뿌리(재배)	16,334	25,265	55%	중국	15,955	홍콩	4,142	캐나다	2,136	1,346
스낵류	6,450,947	4,938,878	6%	캐나다	2,246,575	멕시코	1,127,314	독일	204,496	23,004
가공과일채소	4,717,140	5,016,580	6%	캐나다	975,878	멕시코	880,616	중국	753,021	38,882
낙농제품	1,398,359	1,217,194	23%	뉴질랜드	518,450	캐나다	99,113	아일랜드	71,392	8,974
과채류주스	1,498,637	1,418,482	-5%	중국	486,277	브라질	193,354	아르헨티나	174,145	1,477
견과류	1,253,433	1,280,622	2%	베트남	291,363	인도	234,106	멕시코	199,302	705
와인/맥주	6,327,759	6,683,133	6%	멕시코	1,482,659	이태리	1,117,080	프랑스	977,665	5,105
화훼류	1,159,101	1,237,449	7%	콜롬비아	506,961	캐나다	203,676	에콰도르	135,845	1,461
커피(인스턴트)	863,108	881,138	2%	캐나다	293,324	콜롬비아	109,797	멕시코	102,737	4,574
향신료	931,249	965,897	4%	인도	199,779	인도네시아	141,030	중국	91,985	2,591
차류(허브)	487,415	506,300	4%	중국	102,622	캐나다	95,153	아르헨티나	64,777	5,568
종자류	734,832	1,066,445	45%	칠레	333,567	캐나다	194,979	아르헨티나	71,526	4,034

※ 자료원: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수출입통계 자료 (9월 기준 자료)

※ 미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캐나다(21,375,126), 멕시코(13,071,894), 중국(7,519,748) 순이며, 일본(647,636) 27위, 한국(358,345)로 37위순으로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미국내 한국산 농식품 수입품중 가공과일채소(42%), 커피(인스턴트포함, 13%), 차류(27%)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나, 낙농제품(-16%), 과일주스류(-66%), 견과류(-6%) 등은 감소했음

○ 한국산 수입 증감내용

- 2012년 9월 한국산 농림 수산물 전체 수입액은 358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
 - 소비재 농축산물: 전년도 대비 207백만불에서 238백만불로 15% 증가
 - 수산물 : 전년도 대비 88백만불에서 82백만불로 7% 감소
 - 중간재 농축산물 : 전년도 대비 22백만불에서 29백만불로 30% 증가
 - 벌크 농산물 : 전년도 대비 5백만불에서 5.9백만불로 18% 증가
 - 임산물 : 전년도 대비 2,110천불에서 2,649천불로 26% 증가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미국, 50년만의 가뭄으로 올해 농장 수입 3% 하락 예상
 - 미국 농장 수입은 올해 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별 예측은 생산 비용이 곡물과 가축 생산으로 얻은 수입보다 8%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사료 비용은 올해에만 18%까지 증가했고 농장 수입의 대부분은 가뭄으로 인한 보험 배상금으로 곡물 보험회사들은 올해 63억달러를 지출함
 - USDA에 따르면 02년부터 생산비용이 해마다 증가해서 11년에는 9% 가량 증가되었으며 올해 12년에는 전년대비 8%가 증가되었다고 발표함
 - 농장 토지의 부동산 가치는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7조달러에 이르며 지난해보다 7% 더 증가한 수치로 기록됨

□ 특정품목 시장동향 : 사과(Apple)

○ 현황

동부의 사과 수급 부족 현상으로 사과 재배지로 유명한 워싱턴에 기회가 왔다. 미시간과 뉴욕의 냉해 피해로 인해 15-20%의 손실을 입어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양의 사과 수요가 워싱턴으로 몰리고 있다.

심각한 냉해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신선 사과는 지난해보다 20백만 카톤이 더 생산되었다. 사과 생산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 내, 특히 워싱턴의 사과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시간과 뉴욕의 냉해로 인한 생산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과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9% 가량 증가했다. 12월 1일 현재, 신선 사과의 재고가 약 103백만 부셀이 있으며 지난해 95백만보다 9% 이상, 지난 5년간 평균보다도 9%이상 되는 수치이다.

○ 미국 내 지역별 사과생산 동향

- 동부: 수차례의 냉해나 병충해 위기를 피한 미시시피가 있는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이 올해 가장 주목 받았던 곳임. 반면에 뉴욕뿐만 아니라 멀리 남쪽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냉해로 인한 피해가 컸음. 다행이도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피해지역들의 개화가 빨라져 과실 수확이 2주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임.
- 중서부: 주요 사과 생산 지역은 미시간만큼의 큰 타격을 받았음. 특히 봄철 이상기온에 이은 여름내 가뭄을 겪어 올 가을 작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음. 이 지역에서는 미국인들이 매년 가을마다 연례행사처럼 가족이나 학교 단위로 사과농장을 찾아가 체험하는 ‘애플피킹(사과따기)’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었음. 50년만의 심각한 가뭄이 닥쳐 사과가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자라지 못했으며 늦여름 폭풍까지 몰아쳐 사과나무를 훼손하고 익어가던 사과도 떨어졌음.
- 서부: USApple의 12년 예측은 USDA의 것을 초과했음. 각종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량과 품질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음. USApple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145백만 부셀의 사과가 생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워싱턴주 사상 최고 생산량으로 알려짐. 그러나 사과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미국내 사과 생산 현황(11-12년)

(단위: 천 부셸)

주별	11 사과 생산	12 USDA 사과 생산 예측치	12 사과협회 사과 생산 예측치	12 미국 5년 평균치 대비 증감율
		11년 대비	11년 대비	
뉴욕	29,048	14,048 (-52%)	14,000 (-52%)	-54%
펜실베니아	10,905	11,452 (+5%)	11,000 (+1%)	-3%
버지니아	5,238	5,476 (+5%)	5,250 (n/c)	n/c
노스캐롤라이나	3,333	952 (-71%)	850 (-75%)	-71%
웨스트 버지니아	1,595	1,667 (+4%)	1,667 (+4%)	-7%
뉴저지	857	833 (-3%)	833 (-3%)	-15%
메릴랜드	952	964 (+1%)	964 (+1%)	+2%
버몬트	798	571 (-28%)	638 (-20%)	-30%
메인	690	571 (-17%)	571 (-17%)	-30%
메사추세츠	917	738 (-19%)	738 (-19%)	-22%
뉴햄프셔	429	393 (-8%)	335 (-22%)	-50%
커네티컷	524	429 (-18%)	429 (-18%)	-16%
로드아일랜드	60	57 (-4%)	57 (-4%)	-4%
동부 총생산량	55,345	38,152 (-31%)	37,333 (-33%)	-35%
미시간	23,452	2,500 (-89%)	3,500 (-85%)	-82%
오하이오	1,586	943 (-41%)	957 (-40%)	-53%
위스콘신	1,224	476 (-61%)	476 (-61%)	-58%
인디애나	476	131 (-73%)	131 (-73%)	-77%
일리노이	952	619 (-35%)	619 (-35%)	-32%
미주리	357	810 (+127%)	810 (+127%)	+73%
미네소타	560	321 (-43%)	321 (-43%)	-43%
테네시	202	179 (-12%)	179 (-12%)	+10%
아이오와	95	17 (-83%)	17 (-83%)	-83%
중서부 총생산량	28,905	5,995 (-79%)	7,009 (-76%)	-72%
워싱턴	128,810	135,714 (+5%)	145,000 (+13%)	+13%
캘리포니아	6,667	6,667 (n/c)	7,260 (+9%)	n/c
오레곤	2,202	2,738 (+24%)	2,738 (+24%)	-4%
아이다호	1,429	1,667 (+17%)	1,667 (+17%)	+23%
유타	452	381 (-16%)	381 (-16%)	n/c
콜로라도	214	405 (+89%)	405 (+89%)	+21%
아리조나	262	321 (+23%)	321 (+23%)	-9%
서부 총 생산량	140,036	147,893 (+6%)	157,772 (+13%)	+12%
미국 총생산량	224,286	192,040 (-14%)	202,114 (-10%)	-10%

<출처: S. Apple Association Crop Outlook, USDA's apple crop estimate>

○ 미국 사과 시장의 소비 특징

-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가정의 사과소비량이 높은 편이며 연말 선물로 박스 혹은 바구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음.
- 사과의 다양한 소비 방법을 위해서 사과 옆에 카라멜이나 캔디를 코팅한 사과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함께 진열하는 것이 일상화됨.
- 사과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10월 7일 기준) 6.5% 성장했으며 파운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6%이상 인상되었음.

“<저작권자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